



# Feature articles

## 닭고기 가격결정구조 살펴보기

- ✦ 한국의 닭고기 가격결정구조\_ 김정주 · 48
- ✦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점\_ 강일 · 57

특집  
02

# 한국의 닭고기 가격결정구조

## 1. 닭 및 닭고기 가격의 특징

- 육계는 부화 후 40여일 이내로 상품화 될 수 있으므로 농업생산 중 자본 회임 기간이 가장 짧은 품목으로서 공업 생산에 가까운 ‘공업적 농업’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농업 생산에서보다는 생산의 과잉과 과소가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될 수 있어 가격의 불안정 요인을 안고 있다.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과잉, 과소를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의 등락은 예측 불허로 들쭉날쭉이다.
- 실제로 2002년 1월 2일부터 2007년 12월 22일까지 6년간 일별 육계 생닭(중) 산지가격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6년간 육계 생닭가격은 전반적으로 약간의 하향세를 보이면서 운임을 포함해 800원~2,000원/kg 사이를 두고 숨가쁘게 등락을 거듭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이것을 몇 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2002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800원/kg에서 800원/kg으로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렸다.
-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월, 제1차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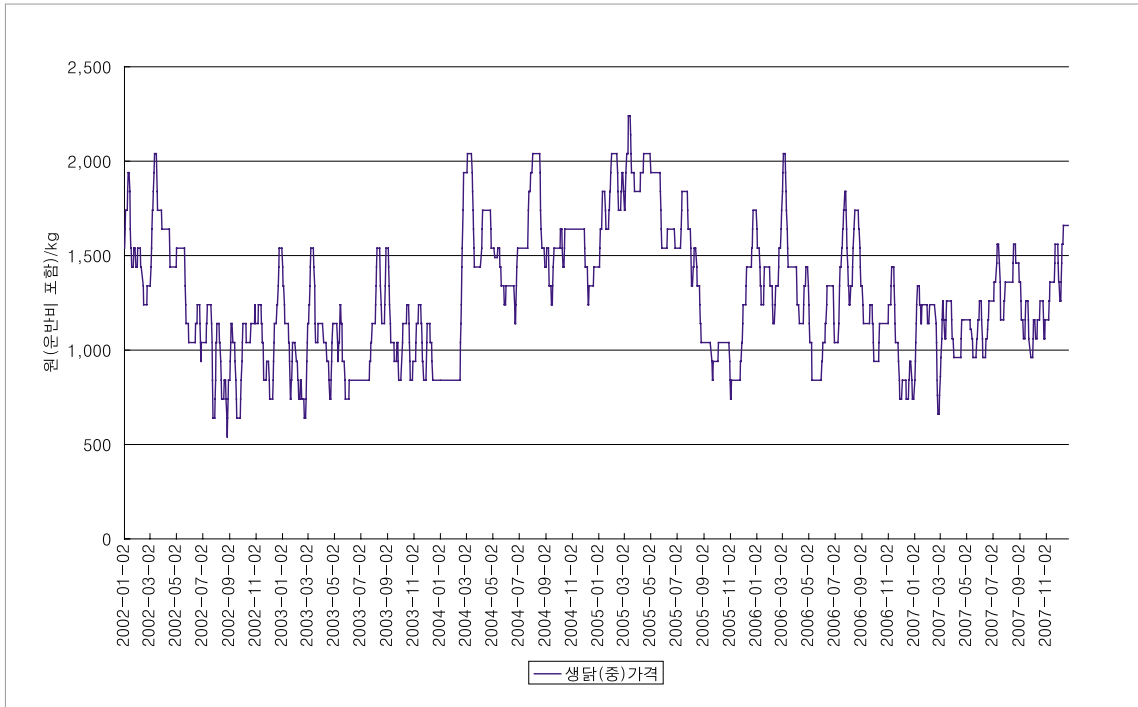
김정주 교수  
건국대학교

류인플루엔자가 꺾일 무렵까지는 1,000원/kg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여기에서 육계 생닭가격의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조류인플루엔자가 꺾일되자 육계가격이 800원/kg대에서 2,000원/kg대로 수직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창궐로 많은 육계가 살처분됨으로써 출하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급상승한 생닭가격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000원/kg을 중심으로 또다시 등락을 반복했다.
- 2005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000원/kg대에서 800원/kg대로 급락했고, 2006년 1월 1,500원/kg대를 회복한 생닭가격은 2006년 12월 제2차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창궐할 때까지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1,000원/kg대에서 1,500원/kg대를 숨가쁘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다.
- 2006년 12월 제2차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창궐하여 꺾일되는 2007년 2월까지 생닭가격은 최저점 750원/kg대를 헤매다가 2007년 3월부터 생닭가격은 다시 1,000원/kg대를 단숨에 회복하고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2007년 12월 1,500원/kg 대에 이르고 있다. 이 또한 제2차



〈그림 1〉 육계 생닭 일별가격 변동



※ 주 : 2002. 1. 2~2007. 12. 22, 육계(중) 산지 20일간 가격 이동 평균임.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발발하자 많은 육계가 살처분됨에 따라 출하물량이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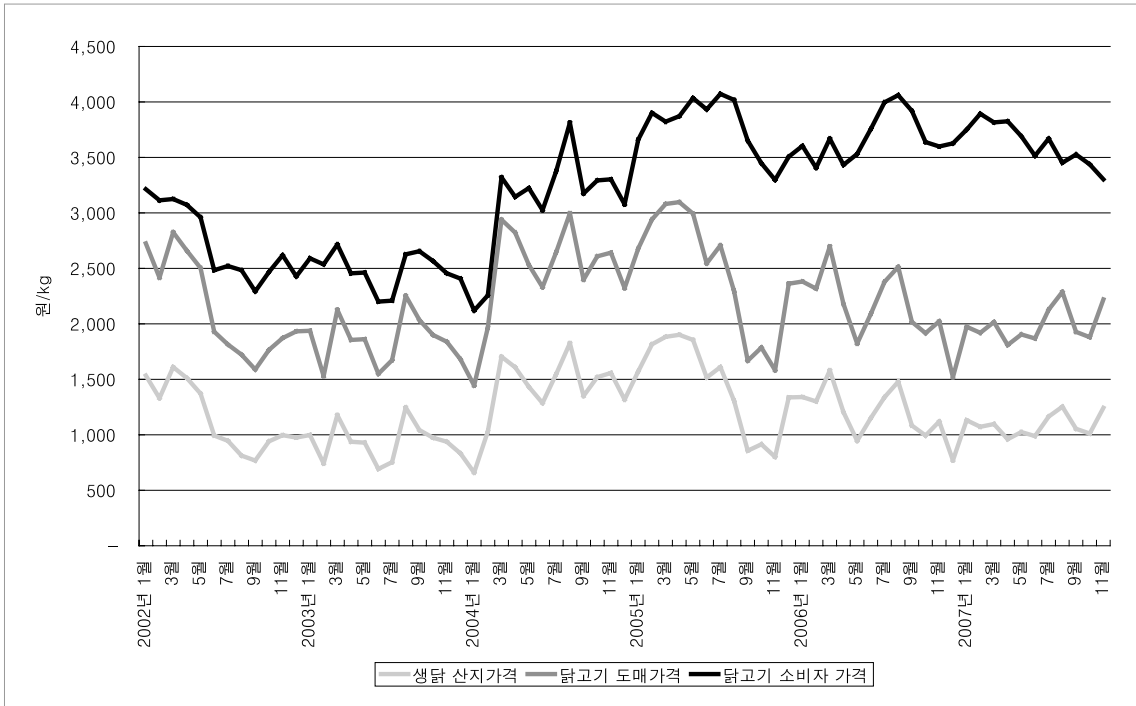
- 생닭 가격의 또 하나 특징이라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마천루 빌딩 숲을 보는 듯한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생닭 가격이 몇 일씩 변동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등락을 거듭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육계가격이 상인들에 의하여 제어되는 시장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이러한 가격 변화가 심한 여건 하에서 시세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가격하락시 손실을 감수하면서 대처해 나갈 능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 육계 농가는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었거나 육계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에는 2002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6년간의 월별 닭 및 닭고기 유통단계별 닭 및 닭고기 가격변동을 나타낸 것

# 한국의 닭고기 가격결정구조

〈그림 2〉 닭 및 닭고기 월별 유통단계별 가격 변동(2002. 1 ~ 2007. 11)



이 〈그림 2〉이다.

- 〈그림 2〉에서 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생산지(공장도)가격대 도매가격, 도매가격대 소비자 가격의 마진폭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계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유통마진은 보장되었던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2차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닭가격 하락이나 상승은 1차에 비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 변동폭을 각 가격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를 통하여 보면 생닭 산지가격(35.4%), 도계육 도매가격(26.6%), 닭고기 소비자가격(23.7%)의 순으로 산지가격 변동폭이 도매가격 변동폭보다 크고, 도매가격 변동폭이 소비자 가격 변동폭보다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닭 및 닭고기 유통단계별 월별 평균 가격 변동 추이

구분	닭 산지가격	닭고기 지육 도매가격	닭고기 소비자가격
평균(원)	900.76	1,633.36	2,411.77
표준편차(원)	318.75	434.78	572.59
변이계수(%)	35.39	26.62	23.74

## 2. 육계 계열화 체계와 육계 도계육 가격 결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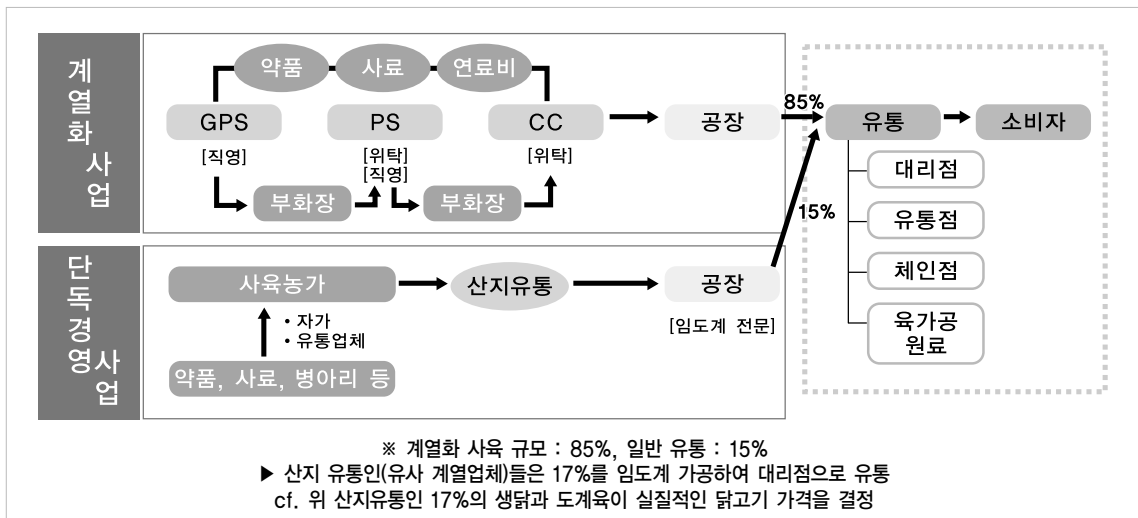
### 1) 육계 계열화 체계

- 한국의 육계산업은 일찍부터 계열화 체계를 도입, 현재 육계 전체 생산의 85% 정도는 계열화에 의해, 나머지 15% 정도는 단독경영농가에 의해 육계가 생산되

고 있다.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육계 계열화 체계의 주된 형태는 사료 효율형 (feed conversion type)으로 사육농가는 계열주체로부터 병아리, 사료, 동물약품, 난방 연료 등 생산 자재와 기술 지도를 공급받아 자신의 노동력과 사육 시설을 이용하여 사육한 후 계열주체의 요구에 따라 출하하고 약정된 사육 보수를 지급 받는 형태이다.

- 어느 축산물을 막론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드물다. 그러나 돼지나 한우와는 달리 육계 도계육의 경우는 유독 가격 결정에 중심적 역할을 할 도매시장이 없다. 따라서 육계 도계육 가격이 전날 육계 생닭가격을 기준하여 일부 대

〈그림 3〉 한국 육계산업의 시장 구조



# 한국의 닭고기 가격결정구조

육계 생닭은 계열화 업체로 출하되고 계열화 업체는 이를 자체 도계장에서 도계하거나 임도계하여 도계육 상태나 부분육 상태로 중간상인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따라서 계열주체의 육계 도계육 가격은 자체 계열화 사업을 통한 육계 생닭원가에 도계 및 2차 가공비용을 합하고 여기에 기업 이윤을 합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육계 생닭가격과는 관련이 없어야 옳다.

규모 유통상인의 실거래가로 육계도계육 가격이 좌지우지되며 이 가격을 계육 협회 등에 의해 안내되고 있다. 물론 전체 육계생산량 중 15% 정도는 육계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단독 경영자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sup>1)</sup>. 당연히 이들 단독 경영자들은 육계 도계육 가격에는 별 관심이 없고 육계 생닭가격에 관심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을 위하여 대한양계협회는 육계 생닭가격을 안내하고 있다.

- 한편, 전체 육계생산의 85%를 담당하고 있는 육계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농가는 육계가격과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된 일정한 사육수수료를 받으므로 육계 생닭가격의 고저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sup>2)</sup>.
- 일정한 체중에 도달한 육계 생닭은 계열화 업체로 출하되고 계열화 업체는 이를 자체 도계장에서 도계하거나 임도계하여

도계육 상태나 부분육 상태로 중간상인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따라서 계열주체의 육계 도계육 가격은 자체 계열화 사업을 통한 육계 생닭원가에 도계 및 2차 가공비용을 합하고 여기에 기업 이윤을 합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sup>3)</sup>. 따라서 육계 생닭가격과는 관련이 없어야 옳다.

## 2) 육계 도계육 가격 결정 구조

- 그런데 문제는 육계 도계육 가격이 관행적으로 육계 생닭을 기준으로 결정,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육계 도계육 가격은 육계 생닭가격과 육계 생닭을 도계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을 합한 값을 육계수율로 나누고 여기에 도축에 드는 제비용을 합하여 결정된다. 즉, 육계도계육 가격 = ((육계 생닭가격 + 운반비) / 수율 + (도축 제비용)) × 증량



- 이렇게 계산되어 안내된 육계 도계육 참고가격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므로 모든 유통참여자는 이 고시가격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계 생닭가격이 떨어졌을 때 관행과는 달리 계열주체가 육계 도계육 공장도 가격에 적정한 마진을 붙인 대리점 가격을 제시할 경우 대리점 등 유통참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다.
- 모든 일반 제조품이 그러하듯이 닭고기도 계열주체가 계열농가가 생산한 생닭을 원료로 하여 여기에 제조과정인 도축과정을 거쳐 육계 도계육을 생산하고, 여기에 다시 적정 이윤을 붙여 대리점 등 유통회사에 출하하는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육계 도계육 가격은 시중 생닭시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컨대 육계 생닭시세가 1,150원이라고 가정하면 육계 도계육 가격은 2,260원/kg<sup>4)</sup>이 된다.
- 실제로 계열주체의 육계 생닭 조달 원가는 1,150원/kg, 도계비용은 1,130원/kg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 이 계열주체의 육계 도계육 공장도 가격은 2,280(1,150

원+1,130원)/kg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육계 계열주체는 육계 생닭가격과는 상관없이 2,280원/kg에 적정 이윤을 붙여 대리점 등으로 출하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에서 육계 생닭가격을 기준한 육계 도계육 가격은 2,260원/kg인데 계열주체의 육계 도계육 공장도 가격은 2,280원/kg으로 계열주체에게 불리하게 2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 육계 도계육 공장도 가격은 육계 생닭 사육비와 도계비 및 기업이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계 도계육 공장도 가격과는 별도로 육계 생닭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발표된 가격이 존재함으로써 육계 도계육 공급자(계열주체)와 육계 도계육 수요자(대리점 등 유통업체)간에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육계 도계육 가격이 육계 도계육 공장도가격 보다 낮게 발표될 때는 그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고 육계 도계육 유통참여자의 마진도 불안전하여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나아가서 육계 계열주체가 도산할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육계생닭 사육농가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다.

1) 이들 단독경영자들 대부분은 유사 계열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육계를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

2) 육계시세가 높게 형성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세 보너스라 하여 육계 생닭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일정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계열업체도 있음.

3) 계열주체가 공급한 육계 도계육 중에는 자체 계열회사에 의하여 조달된 부분 이외에 단독경영자가 생산한 생닭 일부를 구매하여 충당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있음.

4) (육계 생닭시세 1,150원+운반비 60원)/수율 65%+(도계비용 400원)=2,260원/kg

# 한국의 닭고기 가격결정구조

- <표 2>는 시나리오별 육계 유통 참여자 마진을 추정한 것이다. 시나리오 I의 경우 육계생닭 가격이 kg당 800원으로 형성된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현행 육계 도계육 가격결정 구조하에서는 육계도계육 가격은 1,720원/kg으로 발표되어 계열주체가 이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 560원/kg의 적자(-24.6%)를 보지만, 대리점의 경우 580원/kg의 마진(33.8%)을, 2차점의 경우 1,200원/kg의 마진(52.2%)을 챙겨 소비자 가격은 3,500원/kg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실제로 한국계육협회가 발표한 2007년 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93일간 kg당 평균 생닭가격(2,273.04원/kg)과 계열주체의 육계 도계육 공장도 가격에 해당하는 총비용가격(2,280원/kg)을 비교한 바, 6.96원/kg의 적자를 시현하여 -0.3%의 마진율을 창출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 만일 육계 도계육 공장도 가격에 해당하는 총비용가격(2,280원/kg)에 100원의 마진을 붙여 출하한다면 계열주체는 4.4%의 마진율을 창출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 시나리오 II의 경우 육계 생닭가격이 kg당 1,800원으로 형성된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육계 도계육 가격은 3,260원/kg으로 고시되어 계열주체가 이 가격에 따를 것이고 이렇게 되면, 980원/kg의 마진(43.0%)을 챙길 수 있지만 대리점의 마진(7.4%)은 최악의 시나리오(580원/kg) 보다 낮은 340원/kg을, 2차점의 경우도 최악의 시나리오(1,200원/kg) 보다 낮은 1,000원/kg의 마진(28.6%)을 챙겨 소비자 가격은 4,500원/kg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시나리오 III은 육계 생닭가격을 기준으로 육계 도계육 가격을 정하지 않고 육계 도계육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

<표 2> 닭고기 유통 참여자 마진 추정

(단위 : 수, 1kg)

	육계 생닭가격	육계 도계육가격	계열주체 마진	대리점 공급가격	대리점 마진	2차점 공급가격	2차점 마진	소비자 가격
I	생닭시세 800원	1,720원*	-560원 (-24.6%)	1,720원	580원 (33.7%)	2,300원	1,200원 (52.2%)	3,500원
II	생닭시세 1,800원	3,260원**	980원 (43.0%)	3,260원	240원 (7.4%)	3,500원	1,000원 (28.6%)	4,500원
III	생닭생산원가 1,150원	2,280원	100원 (4.4%)	2,380원	520원 (21.8%)	2,900원	1,100원 (37.9%)	4,000원

※ 주) \* : {(800+운반비 60)/수율 0.65}+가공비용 400=1,723원    \*\* : {(1,800+운반비 60)/수율 0.65}+가공비용 400=3,261원





이윤을 인정해주는 가상적인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계열주체의 육계 생닭 생산 원가를 1,150원/kg, 육계 도계육 공장도 가격을 2,280원/kg으로 인정하고, 마진을 100원/kg(4.4%)으로 가정할 경우 대리점 가격은 2,380원/kg이 되어 시나리오 I(1,720원/kg)보다는 높고 시나리오 II(3,260원/kg)보다는 낮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어서 2차점 가격은 2,900원/kg, 소비자 가격은 4,000원/kg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육계 도계육 가격 결정 구조하에서 보다 훨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육계의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마련하지 않고서는 육계농가는 물론, 육계 유통업자, 육계 계열화업체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어 육계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3) 외국의 닭고기 가격결정구조

- 미국의 양계산업은 전통적으로 기초가격 인용제(Base Price Quotation System)에 의해 가격결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이 비교적 잘 반영된다고 보는 New York, Los Angeles, Boston, Chicago 등의 시장가격을 기준해 여기에 적절한 프리미엄이나 할인을 고려하

여 다른 유통단계의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 미국의 닭고기 시장은 1960년대 이전만 해도 군소 업체들이 많았고 생닭 시장이 90%를 점하였다. 이때는 보관기간, 날씨, 운송문제로 닭고기 가격 변동이 심했으므로 생닭을 기준한 가격이 주를 이루었다.
- 그후 1960년대에는 12개 도시 평균 생닭 가격을 USDA가 취합하여 고시하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유통당사자들이 운송비, 닭 사이즈, 품질 등을 고려한 흥정에 의해 닭고기 가격이 결정되었다.
- 그후 'A&P'와 같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가격 결정의 해결사(Price setter)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즉, 대형 슈퍼마켓의 닭고기 가격이 미국의 닭고기 가격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 1970년대에는 미국의 육계산업이 계열화체계에 의해 대형화되면서 Tyson이나 Holly Farms와 같은 닭고기 전문회사가 등장했다. 이때는 대형 슈퍼마켓 가격보다는 'Urner Barry'社가 고시하는 고시가격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면서 Urner Barry 고시가격이 미국의 닭고기 가격의 기준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미국의 육계산업은 가공산업으로 발전했고, 1990년에 들면서 타이슨을 포함한 몇몇 회사가 시장가격이 아닌 자사의 닭

## 한국의 닭고기 가격결정구조


고기 생산원가를 기준하여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 미국 타이슨社의 닭고기 가격결정 구조를 보면 생닭가격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부분육에 의해 시장 상황(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플랜트 매니저(공장장)가 가격을 결정, 발표하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대리점 가격이 결정된다.
- 일본에도 미국의 1970년대에 있었던 'Urner Barry' 고시가격과 같은 기능을 한 기준가격이 있다. 바로 ZEN-NOH CHICKEN FOODS CORPORATION(全農 치킨 푸드 주식회사)이 매일 경제 일간지에 발표하는 닭고기 가격이 그것이다.
- 1972년 全國農業協同組合 聯合會(全農) 자회사로 설립된 이 회사는 닭고기 및 가공품, 사료와 자재의 개발 및 판매업무를 사업내용으로 2006년 매출액 427억 엔을 달성했다. 현재 종업원은 138명이다. 全農 치킨 푸드는 700여개의 농가를 생산자(Grower)로 한 Integrator(계열주체)이다.

### 3. 한국 육계 도계육 가격 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 한국 육계 도계육 가격이 육계 생닭가격

을 기준하여 결정되고 계열주체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면 육계 생닭가격과 상관이 없는 85%의 육계 도계물량이 생닭가격과 상관이 있는 15% 물량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셈이 되어 마치 “개가 꼬리를 흔들지 않고 꼬리가 개를 흔드는 꼴”이 된다.

- 더구나 이러한 가격구조 하에서 육계 생닭 시세가 계속 낮게 유지되는 불황이 지속된다면 계열주체가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여 도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서 지적한 대로 그 폐해는 계열화 사업에 참여한 생산 농가에게로 전가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 문제는 육계 공장도 가격에 해당되는 육계 도계육 생산원가를 누가 얼마나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여 제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일본 젠노 치킨푸드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케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지난 1월 10일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주최, 축산신문 주관, 한국계육협회 후원으로 열린 '계육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내용 중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의 '한국 닭고기 가격결정구조' 연구용역 발표내용을 발췌해 게재한 것입니다.